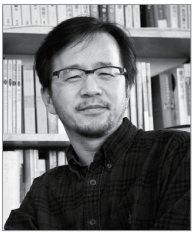


진공 포장된 '순수'를 넘어 진정한 평화의 스포츠로



정윤수

스포츠평론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문화사회학 전공
스포츠 인권, 스포츠미디어에 관심
prague@naver.com

‘순수’한 것은 좋은 것이며 아름답다. 어린아이의 해맑은 눈동자, 맑게 갠 하늘, 순정한 마음으로 쓴 편지, 꽃망울이 터지는 순간. 이런 풍경들을 보거나 상상할 때 우리 마음 또한 ‘순수’해진다.

스포츠에서도 우리는 그런 풍경을 기대한다. 지칠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공을 차는 아이들, 공 하나에 전력을 다하는 투수의 얼굴 표정, 골을 터트린 후 펼쳐지는 천진난만한 세리머리, 부상으로 쓰러진 상대방을 위해 경기를 멈추는 선수들, 승패가 갈린 후 서로 악수를 하고 어깨를 두드리는 양 팀 선수들. 이런 순간들을 보면 우리는 세상이 복잡한 계산과 혼탁한 적대감이 스며들 수 없는 스포츠만의 ‘순수’한 면모를 느끼게 된다. 아름답다.

그러나 이러한 풍경이나 순간은 그야말로 찰나에 지나지 않으며 극히 희소한 어떤 상황에서만 존재한다. 우리의 현실은 ‘진공 포장’된 순수의 공간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과 모순된 조건의 혼합체다.

이런 현실에서 ‘순수’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답지만, 현실의 여러 상황과 조건을 무시한 채 ‘순수’를 절대시하고 그것을 이념화하여 구체적인 현실에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순수’하지 않다. 심지어 파시즘적인 정치 상황, 즉 일반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제도가 무시되고 개인의 자율성이 파괴 당하며 삶의 다양한 가치가 억압되어 오직 정치 권력이 강제하는 단 하나의 삶의 가치와 방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이 ‘순수’가 교조화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만을 강요하는 것은 ‘순수’를 가장한, ‘순수’를 앞세운, ‘순수’를 무기로 한 강력한 권력 행동이 되기 쉽다.

캐퍼닉과 국민 의례

미국프로풋볼(NFL)의 ‘국가 연주’ 논란을 보자. 지난 5월 24일, NFL 구단주들은 경기 전 국가 연주 때 선수들이 반드시 일어나 있어야한다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 연주에 대한 존경을 표하지 않는 선수나 구단 관계자는 벌금을 물게 된다. 국가가 연주 될 때 라커룸에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경기장에 나왔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경을 표하지 않는’ 행위다. 그 행위에는 무릎을 꿇거나 앉아 있는 것이 포함됐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이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전 쿼터백 콜린 캐퍼닉을 시작으로 하여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NFL 선수들의 집단적인 ‘국가 거부’ 행동 때문이다. 캐퍼닉은 2016년 8월, 휴스턴 텍사스와의 프리시즌 경기 전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을 꿇은 채 국민의례를 거부했다. 그 무렵 흑인이 백인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다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 등이 빈발하였고 이에 캐퍼닉은 경찰의 야만성과 인종차별주의에 항의의 표시로 국가가 울려퍼질 때 무릎을 꿇고 저항하였다. 그 이후 NFL뿐만 아니라 나스카(NASCAR · 자동차경주협회), 프로농구(NBA), 프로야구(MLB) 등의 많은 선수들이 캐퍼닉의 뜻에 따라 같은 행동을 하였다.

지난 4월 22일, 캐퍼닉은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수여하는 인권상 ‘양심대사상’을 받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캐퍼닉은 “인종 차별적인 탄압과 인간성 말살은 미국의 특색이 돼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설교하고 전파하면서도 그곳에 사는 그 많은 사람에게 정의롭지 않은 나라의 국가에 어떻게 기립할 수 있느냐”고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밝혔다.

이렇게 신념을 밝히고 다른 선수들이 함께 연대하고 국제앰네스티가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일련의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그의 행동이 모든 이의 환호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꽤 많은 사람들이 캐퍼닉의 행동을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으며 미국 백인 주류 계층을 상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2017년 11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리나라와 국기, 애국가에 대한 무례를 계속하는 선수를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을 여러분은 믿

을 수 있느냐”며 “(NFL 수장인 로저 구델) 커미셔너는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고 선수가 ‘보스’가 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급기야 NFL 구단주들이 강제 규정을 만들게 되었고 로저 구델 커미셔너는 “필드 위에서 보여준 저항 운동은 많은 NFL 선수들이 애국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추측을 낳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애국자’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나고 자란 땅을 사랑하며 그 나라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또한 법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특정한 행동 양태로 표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얘기다. 마음 속으로 얼마든지 미국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특정한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순수하지 못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로저 구델의 ‘애국자’ 표현에 대해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 감독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가감없이 읽어보자.

“NFL은 가짜 애국심과 국가주의의 도구로 국가 연주를 이용하고 있다. 사람들을 겁 주면서 말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하지만 이것은 NFL이 그동안 비즈니스를 해온 방식이다. NBA는 애국심이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저항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리그다. 나는 그런 리그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NFL 선수들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종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이지 국가나 군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하여 살피건대, 그 어떤 사회적 행위도 절대적으로 ‘순수’한 것은 없다. 특정한 사회적 행위에는 그 사회의 여러 상황과 감정과 조건이 전제되거나 스며들기 마련이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아니 스포츠야말로 그 사회의 특정한 상황적 감정이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 행위를 ‘순수’라는 밀폐용기에 진공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사회적 원인이나 조건을 판단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발현해내는 것이다. 콜린 캐퍼닉은 시작하였고 여러 선수들이 연대하였으며 스티브 커 감독이 의미를 부여한대로, 선수들이 국가 연주 때 무릎을 꿇은 것은, 애국심이 없는 순수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발전해온 미국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숭고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

올림픽과 ‘순수’한 정신

이제 올림픽 얘기를 해보자.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저마다의 능력과 꿈을 펼치기 위해 모여드는 ‘순수’한 대회다. 이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올림픽의 수많은 명장면은 이 ‘순수’한 마음의 열렬한 표현이었다. 그 대부분은 신기록을 세우거나 금메달을 땀 때의 ‘순수’한 감정이지만 동시에 1968년 멕시코올림픽 때의 미국 흑인 선수들을 비롯하여 여러 장면들은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선수들이 개인적인 피해를 감내하면서 일으킨 것이다.

그것을 단순히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마다 그 조직

기구인 IOC와 FIFA가 선수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엄격히 금지하고는 있다. 만약 그 빗장이 풀린다면 경기장은 온갖 정치 구호의 선전장으로 변할 것이고 금세라도 난투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과 양식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순수’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표현을 한 선수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가 징계 받을 것을 알고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기 감독관이 아니다.

가까운 예로 2016리우올림픽 마라톤 은메달 수상자인 에티오피아의 페이사 릴레사 선수가 있다. 그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 두 팔을 들어 ‘X’ 모양을 만들었다. 에티오피아 비밀경찰의 탄압에 저항하는 3500만 오모로족의 의지를 대변한 것이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제스처를 되풀이하면서 귀국하면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릴레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한 IOC로부터 제재받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는냐는 질문에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나라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위를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일체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위반하면 제재를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대회 주관 기구인 IOC나 FIFA의 일이다. 나머지 사람들마저 ‘순수하지 못하다,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한다’고 덮어놓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가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다.

아니 ‘순수한 제전’이라고 하는 올림픽 개막식 자체가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얼룩진 사례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올림픽 개막식은 언제나 개최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경연장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패권 국가의 위용을 자랑하는 공간이기도 하였고 전범 국가가 자신들의 잔인했던 전쟁의 기억을 ‘세탁’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앞의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36년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이다. 올림픽 성화를 ‘신성한 올림픽의 불’(Sacred Olympic Fire)이라고 한다. 1950년의 올림픽 현장을 통해 명명됐다.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해 개최국의 여러 도시를 순회한 뒤 개최 도시의 주경기장에 입장하여 불을 밝히게 된다. 이 방식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때부터 시작됐다.

히틀러의 정신을 담당한 요제프 괴벨스와 그 육체를 담당한 카를 딘 올림픽위원장이 스펙터클 문화 통치, 즉 거대한 시각적 구경거리를 통해 이른바 ‘배타적 국수주의’와 ‘국민 총화단결’을 신성한 제의 양식으로 관철시키려 고안한 문화 전략이 성화 봉송이다.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거쳐 독일의 주요 도시를 순회한 뒤 베를린에 도착한 성화는, 베를린 곳곳의 장대한 동상과 하켄크로이츠 깃발(그것은 경기장 성화대에도 나부꼈다)과 함께, 결국 나치 선전장의 상징이 되었다.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실은 힘이 약해서 패했을 뿐이라고 강변한 사례는 1964년 도쿄올림픽

이다. 그때, 성화는 오키나와에 처음 상륙해서 열도를 행진해 도쿄에 입성했다. 오키나와의 첫 성화 주자는 2차대전 때 아버지를 잃은 전쟁고아였고 도쿄 주경기장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최종 주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 2세였다. 성화가 밝혀진 뒤, 일왕 히로히토는 평화라는 주제의 개막 선언을 했다. 잔혹한 전범국가가 스스로를 단지 게임에서 졌을 뿐인 패전국가라고 선언하는, 원폭 피해까지 입었음에도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호소한다는 이 스펙터클이야말로 순수하지 않다.

평창올림픽과 평화올림픽

그렇다면 2018평창올림픽은 어떠한가.

술한 논란과 우려가 있었다. 과정상의 실수도 분명히 있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단일팀 구성을 주장하였으므로 관계 부처와 대한체육회는 어느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단일화 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그 대상이 되는 종목 관계자와 선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필요하다면 사후의 제도적 보상까지 논의하였어야 했다. 북한이 언제든 전광석화로 올림픽 참가 및 단일팀 수락을 발표하게 될 때에 대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고 설득한 상황에서 그에 대응했어야 한다.



출처: shutterstock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 서양 연금술사들의 좌우명이다. ‘신중하게 서두르라’는 뜻이다. 신중하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타개해 가는 것. 이 점에서 큰 실수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평화의 가치를 해쳤을 정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복기해 보자. 2017년 하반기 내내 정부는 국내외 외신은 물론 유엔총회까지 활용하여 ‘북한의 올림픽 참가, 남북 단일팀 구성, 대회 기간 중 쌍방 군사 행동 일시 중단’을 여러 차례 표현하였다.

이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순수한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스포츠와 올림픽을 밀폐 용기 안에 옥여넣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스포츠는 사회적 행위이며 올림픽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정치 집단이 그 무렵에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를 마음대로 활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베를린올림픽과 도쿄올림픽, 그 개막식을 통해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이미 말하였다. 중요한 것은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당대에 사회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를 실천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시계를 잠시 거꾸로 돌려보면 2016년에서 2017년 내내 이 한반도는 북핵 위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2017년 4월 15일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북한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개최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였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이다. 그 이후에도 ‘위기설’, ‘전쟁설’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전쟁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가. 대화가 쉽지 않고? 그렇기는 하다. 그렇다면 올림픽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원래 고대 올림픽 때도 그랬고 쿠베르탱이 창안한 근대 올림픽도 ‘이 기간 만큼은 대립과 갈등과 전쟁을 멈추자’는 올림픽 정신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더불어 단일팀도 구성한다면, 오히려 올림픽의 정신이 구현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볼 여지가 더 크다.

앞서 언급한 나치 올림픽이나 도쿄 올림픽은 물론이고 강력한 군사력과 극단적 이념 대결을 펼친 모스크바와 LA 올림픽, 대국굴기 중화주의의 베이징 올림픽과 푸틴의 강력한 러시아의 힘을 보여준 소치와 비교할 때, 일단 잠시라도 군사적 긴장을 늦추고 대화를 해보자는 이번 올림픽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일단 북미간 군사 행동을 쌍 중단 하고, 여러 채널을 가동하여 올림픽 이후에도 긴장보다는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것은 단순한 스포츠 외교가 아니라 거의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처한 복합적인 상황과 갈등을 헤아리지 않고 ‘순수’라는 밀폐 용기에 복잡한 모순의 현실을 납작하게 눌러 집어넣어서는 곤란하다.

더 많은 평화, 과정으로서의 평화

올림픽 이후 다각도의 남북간 교류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남북간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는 현재, 약간의 마찰과 줄다리기는 있지만, 6월 초에는 가히 세계사적인 북미간 정상회담까지 예고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첫 단추가 평창올림픽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창올림픽의 의미가 다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더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적극적인 남북간 스포츠 교류가 필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축구와 농구의 상호 왕래 얘기가 오가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남북간 스포츠 교류에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 스포츠를 ‘구호물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난 5월 13일, 경기도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는 ‘러시아 월드컵 본선 16강 기원’이라는 취지를 앞세운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있었는데 조금은 걱정되는 특별 이벤트도 열렸다.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사람이 차고 역시 국가대표 골키퍼를 지낸 유명 스타가 막는 승부차기 이벤트였다. 이 이벤트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5백 만원은 북한 어린이들에게 축구용품을 기증하는데 쓸 예정이라고 주관 단체는 밝혔다.

이런 이벤트가 위험하다. 홍보 이벤트 전문가가 기획하고 사회까지 본 행사에서 ‘북한 어린이’는 과



출처: shutterstock

연 누구인가. 과연 어떤 맥락에서 축구용품을 북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가. ‘순수하게 좋은 일’하는데 비난이냐고 할 수 있지만 ‘순수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 ‘북한 어린이’가 대상화되고 주변화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순수’란 이토록 현실적이며 복잡한 것이다.

또한 우리 스포츠에 내재된 폐습을 해결해야 한다. 실은 이것이 평창올림픽이 남긴 진짜 중요한 과제다. 심석희 선수에 대한 폭행,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체육계 성폭행, 빙상연맹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조직 이기주의적인 운영과 결정들, 인권 감수성 향상과 성폭력 예방 교육 및 그 위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그저 일시적인 워크숍 단체 교육 정도로 그치는 대한체육회의 관행 등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평창올림픽이 남긴 과제다.

그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의 민주적인 운영과 의사 결정,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 등을 제대로 해나갈 때,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 아직 평창올림픽은 끝나지 않았고 그 꿈의 겨울이 남긴 숙제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이 글에 실린 내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